

개업보다 취업...지게차·굴삭기 자격증 열풍

경기불황 장기화 활용도 넓어 연령·성별 구분없이 인기
미용사·한식조리사·제빵사 인기 주춤...자격증 변화

산업인력공단 광주·전남 취득현황

지게차·굴삭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6500명(광주 2218명, 전남 4308명)이 넘게 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즉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성별 따로 없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용사, 한식조리사, 제빵사 등 인기 주춤하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자격증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한 자격증 취득자는 광주 2만2845명, 전남 2만9060명 등 총 5만1905명이었다. 이는 전년도(광주 2만985명, 전남 2만6471명)보다 각각 8.9%(1860명) 9.8%(2589명)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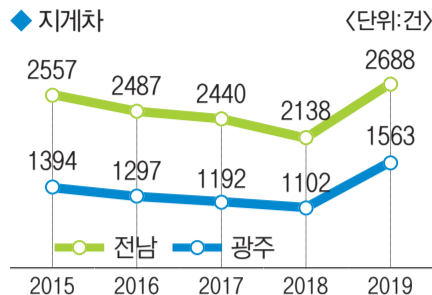
산업인력공단이 상시 관리하는 종목 14

개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지난해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자는 광주 1563명, 전남 2688명이었다. 전년(1102명, 2138명)보다 각각 41.8%(461명), 25.7%(55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광주 20대가 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78명, 30대 293명, 50대 260명 순이었다. 20세 미만과 60세 이상도 각각 114명, 56명이나 됐다. 전남지역도 20대 736명, 30대 570명, 40대 485명 순으로 많았다. 전남은 50대(384명)보다 20세 미만(414명)의 자격증 취득이 더 많았다.

굴삭기 운전기능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지난해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자는 광주 655명, 전남 1620명으로 전년(543명, 1407명) 대비 각각 20.6%, 15.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려는

■ 광주·전남 자격증 취득 현황



50대뿐 아니라 신규취업연령인 20대에서도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 인기를 끄는 것은 활용도가 넓어 즉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면 건설업

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운송·창고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보처리기사 취득자도 광주 829명, 전남 432명으로 전년(560명, 287명)보다 크게 늘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없어지면서 2017년 취득자(229명, 117명)가 뚝 떨어졌다가 차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기가 치솟았던 미용사와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제빵사 등은 주춤한 상태다.

광주지역 자격 취득자는 미용사 일반의 경우 2018년 539명→582명, 네일 459명→473명, 피부 485명→469명, 메이크업 329명→282명이 취득했다. 같은 기간 한식조리사는 881명→825명, 제빵기능사는 347명→34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이들 자격증은 취득 후 개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업보다는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격증 취득에도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39.69 (-22.95) ↓ 금리(국고채 3년) 1.40 (-0.06)
- ↓ 코스닥 676.52 (-6.95) ↑ 환율(USD) 1167.00 (+8.90)



KEB하나은행, 전남신보에 5억 출연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그룹장 정민식)은 21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양수)을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5억원을 출연했다. <KEB하나은행 제공>

광주 오피스텔 지난해 분양 7곳 중 5곳 청약 미달

청약률 1.9~3.1%에 그쳐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7곳 중 5곳이 청약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투우'에 공개한 오피스텔 청약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총 7곳이다. 이 중 광산구 월계동 첨단트레비엔 H-CITY와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대성베르힐 등 2곳만 청약 건수가 공급 규모보다 많았다.

총 387가구를 공급한 첨단트레비엔 H-CITY는 738건의 청약이 접수돼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성베르힐은 559가구 분양에 89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나머지 5곳은 청약이 미달됐다. 광산구 쌍암동 미르레치비파크(468가구·9건), 동구 수기동 총장모아미래도시위트엠(439가구·9건)과 중장유담유블레스(480가구·11건), 동구 금동 문화전당역오펠리움(324가구·10건), 광산구 지족동 광산엘리체레이크시티(610가구·19건) 등 5곳은 청약률이 1.9%~3.1%에 그쳤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상품을 대체하지 못하고, 임대수익률 등 수익성마저 떨어져 인기가 시들하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7만6000여가구가 준공되고 지난해 분양물량 상당수가 미분양이어서 올해도 오피스텔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소매유통업 "1분기 전망 어둡다"

광주상의 '경기전망 지수' 조사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올해 1분기 유통경기가 전분기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6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RBSI는 74로 전분기 81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체별로는 백화점(전분기 100→1분

기 75)과 슈퍼마켓(74→63)은 전분기보다 경기 전망지수가 하락했고, 대형마트(73→82)와 편의점(81→82)도 경기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비심리 위축'(5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비용상승'(23.9%), '업체 간 경쟁 심화'(14.9%), '정부규제'(4.5%) 등을 들었다.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는 '규제 완화'(55.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시급 인하 및 조정'(16.4%),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11.9%), '전문인력 양성'(3.0%),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3.0%), '출점 억제'(1.5%), '경기 활성화'(1.5%) 등을 꼽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5월 공익 직불제 시행 땐 농가소득 4500만원 될 듯"

농촌경제연구원 전망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올해 평균 농가소득이 45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0년 농업 및 농업경제 동향과 전망'에 담겼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소득은 4490만원으로, 지난해 4265만원(추정)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이전 소득이 15.2%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연구원은 농가소득이 연 평균 1.7% 증가해 오는 2029년에는 5035만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 50조4280억 원보다 0.8% 늘어난 50조4380억원이 될 전망이다. 쌀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이 1.4% 증가하는 반면, 돼지·오리 가격 하락으로 축산업 생산액이 0.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늘·양파 등 채소류 생산액은 3.7% 줄어든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올해 농가인구는 22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5% 감소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 정도 증가한 141만이 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선물·제수용품 전통시장서 싸게 사세요"



광주지방국세청 박석현 청장과 직원들이 21일 무등시장에서 설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무등시장서 장보기 근로·자녀장려금 명절 전 지급

광주지방국세청은 21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을 한 광주시 남구 '무등시장'에서 설명절 장보기 행사를 했

다. 행사에서 박석현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광주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안내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은 생활자금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설 명절 전인 23일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이날 광주시 동구 노인복지시설인 이일성로원과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